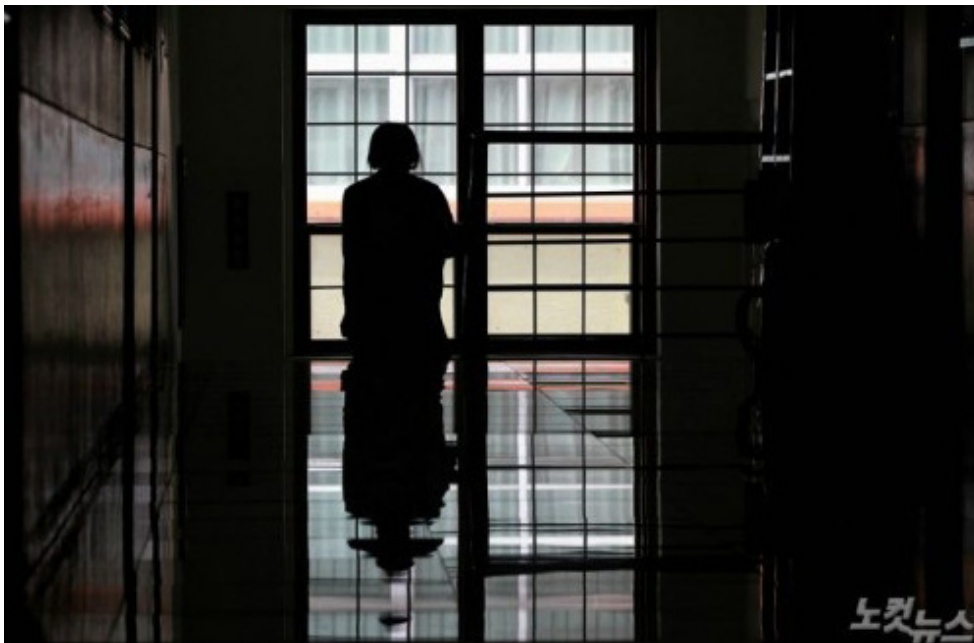


장려상

아버지의 번호 - 잊지 못할 취재원



대전 CBS

김미성 기자



회사로부터 연락이 온 건 평범한 오후였다. 2018년 내가 쓴 학교폭력 기사 속 피해자 가족의 연락처를 알고 싶다는 문의였다. 바쁘게 취재하던 나는 한동안 그 문자를 들여다봤다. 한참 전 기사였는데도 누군가는 아직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준우네(가명) 가족을 도와주고 싶는데 교육청과 경찰에서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기자님이 혹시 알고 계실까 해서 연락드립니다.”

그는 과거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했다. 생업 때문에 답장이 늦어지자 메일까지 다시 보내왔다. 메일에는 준우네 가족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 담겨있었다.

나는 급히 휴대전화 연락처를 뒤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연락은 2018년. 어딘가 남아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바꾸며 문자 기록은 사라졌고, 카카오톡 대화창에는 ‘탈퇴한 회원’이라는 문

구만 남아 있었다.

그렇게 나는 준우 아버지의 번호를 끝내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미 오래전 그를 영영 잃었다는 사실을 다시 실감했다.

처음 준우 아버지를 만난 건 2017년 여름이었다.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충남 천안의 한 학교 폭력 사건을 제보한 준우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열정이 가득했고, 나 역시 열의가 넘치던 초보 기자였다.

초등학교 3학년이던 준우는 1년 가까이 학교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동급생들은 이른바 ‘경찰 놀이’를 한다며 아이를 책꽂이에 밀어 넣고, 의자에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아두고,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괴롭혔다.

아이는 무너지고 있었다. 반복된 구토 끝에 피를 토하며 응급실에 실려갔고, 위점막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십

차례 심리치료가 이어졌다. 병원 기록지에는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일부는 ‘서면사과’와 ‘교내봉사’에 그쳤고,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아무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분명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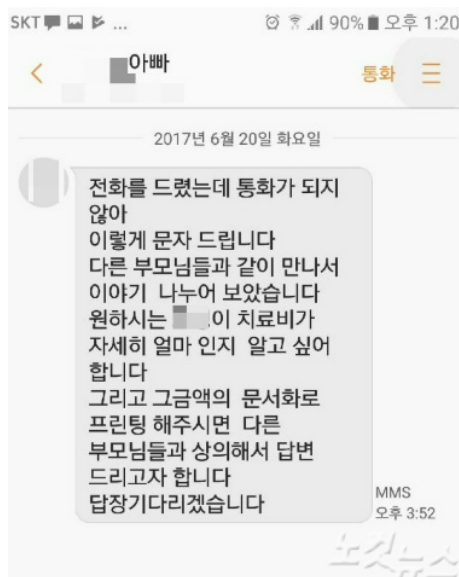
준우 아버지는 분노와 허탈함 사이를 오갔다.

“학교 이야기만 나오면 애가 울고 경기까지 하는데, 이 결과가 맞습니까.”

학폭 소송도 쉽지 않았다. 절차는 더디게 흘렀고, 피해 가족은 지쳐갔다. 결국 학교를 떠난 건 가해 학생들이 아니라 준우 가족이었다. 이사를 앞두고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차라리 가해자가 되라고 가르쳐야 하나 싶어요.”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아무 답을 하지 못했다. 기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 배웠다. 무엇이든 질문해야 하고, 답을 듣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준우 아버지의 말 앞에서, 나는 한 마디도 할 수 없었다. 늘 무력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아버지가 준우 아버지에게 보낸 문자. 준우 아버지 제공

2018년 4월, 나는 마지막 학교폭력 기사를 썼다. 그리고 한 달 뒤 준우 아버지로부터 문자가 왔다.

상황에 변화가 있는 걸까. 소송이 이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까. 작은 기대를 품고 휴대전화를 켜다. 그런데 돌아온 건 준우 어머니의 답답한 문자였다.

“기자님, 저 준우 엄마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자를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아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던 사람이었다. 교육청을 찾아다니고, 자료를 모으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사람이었다. 나는 한

2026 기자의 세상보기

학폭 소송 6개월째, "가해자에 소장조차 보내지 못했다"

김미성 기자
입력 2018.03.27. 오전 12:01 (기사원문)

39 11

대하 개안

대답 없는 학교, 가해학생·부모 인적사항 알려주지 않아 소송 지연

[대전CBS 김미성 기자]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가 가해학생과 부모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소송이 6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소장을 보낼 수 있는데, 현재 가해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소장조차 보내지 못한 상태다.

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다. 준우 어머니와 전화를 하던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오히려 담담하게 내게 이야기를 해준 건 어머니였다.

“기자님께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유가족은 학교폭력이 한 아이의 삶만이 아니라 한 가정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한 줄 한 줄 힘겹게 기사를 썼다. 활자로 옮기면서도 이 문장이 누군가를 또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여러 번 망설였

다. 그렇게 기사가 세상에 나갔다.

이후에도 한동안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고, 주고 받았던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은 결국 기억을 조금씩 밀어냈다. 매일 새로운 사건을 쫓아다니다 보면, 기자는 애써 잊는 법부터 배우게 된다. 그 래야 다음 취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 8년 전 기사를 기억하는 낯선 사람의 연락을 받고 나는 오래 묻어둔 질문과 다시 마주했다.

나는 취재원을 얼마나 오래 기억하고 있었던가. 전화를 끊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타인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정작 기사를 쓴 나는 연락처 하나 남겨두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남았다.

준우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버지 없이 청소년기를 지나 어느새 19살이 됐을 것이다. 나는 가끔 그의 이름을 떠올리는 기자로 남았고, 그는 아마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다만 그 아이가 지금은, 예전보다 조금은 덜 아픈 곳에 머물고 있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오랫동안 그 가족을 취재했던 기자가 아직도 품고 있는 작은 바람이니까. 🍀

대전CBS 김미성 기자